

학습주제: 2. 유교: 맹자

원전의 핵심 문장 읽기

① 모든 사람은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 즉 남에게 차마(애뜻하고 안타까워 감히) 모질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선왕들은 이 마음에 따라 정치를 했다. 남에게 차마 모질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왕이 백성들을 차마 모질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를 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마치 천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는 것처럼 쉽다.

② 이것에 근거할 때,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惻隱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불의를 부끄러워하는 마음(羞惡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辭讓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또 측은해하는 마음은 인(仁)의 단(端)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義)의 단이며, 사양하는 마음은 예(禮)의 단이고,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마음은 지(智)의 단이다.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능히 잘할 수 있는 것은 ‘양능_{良能}’ 때문이고, 사람이 깊이 생각하거나 헤아리지 않고도 능히 잘 아는 것은 ‘양지_{良知}’ 때문이다. 두세 살짜리 어린아이도 자기 부모를 사랑할 줄 알고, 자라서는 누구나 형을 공경할 줄 안다. 부모를 부모답게 모시는 것이 인_仁이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의_義인 데, 이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이치이다.⁸

자신의 마음을 다하게 되면, 자신의 본성_性을 알고, 자신의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안다. 자신의 마음을 보존[존심_{存心}]하여 자신의 본성을
기르는 것이 곧 하늘을 섬기는[사천_{事天}] 도리이다. 의심하지 않고 수
신_{修身}함으로써 기다리는 것이 하늘의 명[천명_{天命}]을 올바로 세우는
길이다.

맹자는 이것을 “사람의 마음은 인_仁이고,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의_義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근본 마음[본심_{本心}]을 잃어버리고도 이를 찾으려 하지 않으니 슬플 뿐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키우는 개나 닭이 없어지면 찾으려고 하면서도 왜 잃어버린 마음은 찾으려고 하지 않는가? 학문이란 마땅히 이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구방심_{求放心}] 寡欲이다.”라는 말로 타고난 도덕적인 마음을 기르는 ‘양심_{養心}’ 공부를 강조한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강조했던 ‘사단의 확충’과 같은 의미이다.

왕도란 보민_{保民}, 백성을 편안하게 지켜주고 살림을 행하는 것이다. 국가의 제례의식 때 사용할 소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왕이 ‘아무런 죄가 없는 소가 벌벌 떨며 끌려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으니 소를 양으로 대신 바꾸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왕도이다. 왕은 소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단지 소에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한 것불인, 不忍’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인_仁을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왕도란 행하지 않는 것이지,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안정된 생업_{恒産, 恒産}이 없으면서도 안정된 마음_{恒心, 恒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선비나 가능한 일이다. 하

다섯 묘의 땅에 뽕나무를 심으면 쉰 살의 노인도 비단옷을 입을 수 있고, 닭이나 돼지, 개를 기르게 하여 새끼를 낳게 한다면 일흔 살의 노인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백 묘의 땅에 농사를 짓게 하면 여덟 가구가 굶주리지 않아 효와 우애를 행하도록 가르칠 수 있고, 노인이 땅에 버려지는 일이 없게 된다. 노인이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고, 버려지지 않으며, 젊은 사람이 굶주리지 않고 추위로 고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왕도이다.¹³

상나라 왕조를 세운 탕 임금의 하나라 폭군인 걸을 추방하고, 주나라의 무왕이 폭군인 상의 주 임금을 죽였다. 이는 신하가 군주에게 벌을 주거나 시해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인_仁을 해친 자는 이미 도적이라 부르고, 의_義를 해치는 자는 이미 잔악하다고 부르기 때문에 이들은 시정잡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군주를 시해한 것이 아니라 시정잡배를 처리한 것일 뿐이다.¹¹